



주요 동향(2) : ICT

1 MWC Shanghai 2026, 모바일 AI 운영 인프라의 부상

➔ 'The IQ Era', 중국형 모바일 AI 산업화 모델 제시

- (행사 개요) 정책 수요와 산업 공급이 결합된 모바일 AI 무대
 - MWC Shanghai 2026은 '26년 6월 24~26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권 주요 모바일·통신 산업 행사로, 'The IQ Era(IQ 시대)'를 핵심 기조로 채택
 - 이번 행사는 MWC 바르셀로나에서 제시된 통신 산업의 AI 지능화 방향이 중국 시장의 적용·사업화 관점에서 한층 구체적인 산업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
 - 현장에서는 AI 서비스·단말·로봇·인프라가 함께 제시되며, 모바일 AI가 단일 제품이나 기술 시연을 넘어 산업 전반의 운영 체계로 다뤄지는 흐름이 부각
- (핵심 메시지) 연결 중심 산업에서 AI 서비스 운영 산업으로 확장
 - MWC Shanghai 2026에서 확인된 핵심 변화는 모바일 산업의 경쟁 초점이 연결 품질 확보에서 연결 기반 위의 AI 활용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 기존 논의가 가입자 확보와 데이터 사용량, 통신망 도달 범위에 집중됐다면, 이번 행사에서는 AI 사용량 계량, 서비스 품질 보장, 단말·현장 적용 방식이 핵심 논점으로 부상
 - 특히 이번 행사는 중국 정부의 로봇·AI 단말 구매 지원책 발표 직후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기술 전시와 초기 수요 조성 정책이 맞물린 사례로 주목
- (아젠다) The IQ Era를 구성하는 4대 공식 테마와 5대 분석 흐름
 - MWC Shanghai 2026은 'The IQ Era'를 ① AI 4 Enterprise, ② Connect AI, ③ Intelligent Infrastructure, ④ Mobile AI의 4대 테마로 구성하고, 행사의 주요 논의 축으로 제시
 - 네 가지 테마는 기업 활용, 네트워크 운영, 인프라 고도화, 단말 혁신으로 영역을 나누되, 모바일 산업 전반의 지능화를 공통 방향으로 제시
 - 이는 中 모바일 산업이 AI를 모델 경쟁에 한정하지 않고, 통신 인프라와 단말 생태계를 결합한 산업 운영 체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 다만 네 가지 테마는 적용 영역별 분류에 가까운 만큼, 모바일 AI의 산업화 과정을 토큰 계량부터 차세대 연결까지 이어지는 5대 흐름으로 재구성

→ MWC Shanghai 2026에 나타난 주요 트렌드

- 모바일 AI 산업화, 계량·품질·인프라·접점·연결로 구체화
 - MWC Shanghai 2026에서는 통신 산업의 AI 전환 논의가 개별 서비스나 단말 응용을 넘어, 모바일 AI를 산업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한 체계 관점으로 확장
 - AI 활용 범위가 대화형 서비스에서 단말·로봇·산업 현장으로 확대되면서, 통신망의 역할도 단순 연결 제공을 넘어 AI 호출량 관리, 지연 최소화, 연산 자원 연계 등 서비스 운영 기반으로 확장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르셀로나가 통신망을 ‘AI의 신경망’으로 규정하며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상하이에서는 이를 계량, 품질, 인프라, 접점, 연결이라는 구체적 산업 과제로 세분화
 - 이에 따라, 모바일 AI 산업화는 AI 사용량 계량, 망 품질 보장, 연산 처리, 단말 접점, 차세대 연결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화
- 모바일 AI 산업화를 구성하는 5대 기술 흐름
 - (토큰 기반 운영) AI 모델 호출량과 추론량이 새로운 계량 단위로 부상하면서, 기존 데이터 전송량 중심 과금에 AI 사용량 계량을 결합하려는 논의 확대
 -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AI 서비스가 현장 제어와 작업 수행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통신망 경쟁 기준이 속도와 커버리지 중심에서 지연, 안정성, 품질 보장 역량으로 이동
 - (지능형 인프라) AI 호출과 추론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품질의 변수가 모델 성능을 넘어 연산 자원 배치, 데이터센터, 엣지, 전력·냉각 등 물리 인프라 운영 역량으로 확대
 - (AI 단말·피지컬 AI) 스마트폰, PC, 로봇 등 주요 단말이 단순 앱 실행 기기에서 AI 추론을 호출하고 수행하는 접점으로 전환되며, 모바일 AI 서비스의 핵심 진입 지점으로 재정의
 - (6G·NTN) 5G-A가 현재의 산업 AI 적용 기반을 담당하는 가운데, 6G와 위성-지상 통합망은 단말·로봇·현장 중심의 이동형·분산형 AI 서비스를 확장하는 차세대 연결 구조로 부각
 - 이들 5대 흐름은 개별 기술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AI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계량·품질·연산·접점·연결 기능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 되는 과정으로 해석 가능

1. (토큰 기반 운영) AI 사용량 계량이 통신 과금의 새 변수로 부상

- 호출량 관리와 비용 최적화가 통신사의 신규 사업 과제로 확대
 - 생성형 AI 확산으로 모델 호출과 추론 과정마다 비용이 발생하면서, AI 사용량을 계량하는 토큰이 서비스 원가와 과금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관리 단위로 부상
 - 기존 통신 과금이 가입자 수와 데이터 전송량을 중심으로 형성돼 온 것과 달리, 모바일 AI 확산 이후에는 AI 호출량과 추론 사용량을 과금 체계에 반영하려는 논의 확대
 - 다만 AI 서비스 수익 배분은 모델·클라우드 사업자에 유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 통신사는 자사가 보유한 망, 단말, 가입자 기반을 활용한 참여 전략을 모색하는 상황
 - 이에 중국 통신 3사는 AI 중심의 과금 및 서비스 운영 체계를 공통적으로 제시하되, 각 사의 보유 자산에 따라 차별화된 진입 경로를 설정
- (차이나모바일) 가입자 번호·SIM을 통한 AI 서비스 점점 확대
 - 차이나모바일은 3사 중 가장 큰 가입자 기반과 단말 접점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처음 접속하는 경로를 자사 번호와 SIM 체계에 연계하려는 전략을 제시
 - 이를 위해 회선 개통과 함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AI를 호출할 수 있는 AI-eSIM을 선보이며, 휴대폰 번호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
 - 이는 외부 AI 모델을 단순 중개하는 방식과 달리, 번호·SIM·망 접속을 결합해 사용자가 AI 서비스에 진입하는 초기 경로를 확보하고, AI 호출량 관리와 비용 최적화까지 연계하는 접근
- (차이나텔레콤) 토큰 허브 기반의 기업용 통합 AI 운영 체계 구축
 - 차이나텔레콤은 개인 이용자보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높은 추론 비용과 복잡한 구축·보안 요건으로 AI 도입을 유보해 온 정부·기업 수요를 확보하는 데 주력
 - 이를 위해 싱천 토큰 허브를 통해 AI 모델 선택, 사용량 계량, 비용 산정, 운영 관리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하고, 보안·구축·비용 부담을 낮춰 기업의 AI 도입 장벽을 완화
 - 차이나텔레콤은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와 보안 업무폰을 토큰 허브와 연동해 문서 처리, 고객 응대, 내부 업무 지원 등 기업 현장의 AI 활용 범위 확대 지원
 - 이는 보유 모델 수 경쟁을 넘어, AI 호출량·비용·보안·업무 적용을 함께 관리하는 플랫폼 운영 역량이 기업용 AI 시장의 핵심 사업 단위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

● (차이나유니콤) 국제망과 연계한 AI 클라우드의 해외 공급 확대

- 차이나유니콤은 내수 시장 중심의 두 기업과 달리, 200여 개국을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과 사물인터넷 운영 역량을 앞세워 해외 기업 시장 진입을 추진
- 이를 위해 범용 연산과 AI 전용 연산, 토큰 과금, 에이전트를 하나의 클라우드에 결합하고, 이를 국가별 규제·보안 요건에 맞춘 AI 운영 서비스 제공 방향을 제시
- 이는 중국 내 토큰 과금 경쟁을 넘어, 국제망과 연산 및 보안 자산을 결합해 해외 시장에 AI 인프라와 운영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려는 시도로 해석

2.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AI 단말 데이터 처리·조율 역량 중심의 망 재편

● 속도·커버리지 경쟁에서 지연·안정성·자원 조율 경쟁으로 확장

- 토큰 기반 운영이 AI 사용량을 계량하고 과금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는 AI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망 품질을 보장하는 데 초점
- AI 활용 범위가 대화형 서비스에서 로봇, 드론, 산업 단말 등 실시간 현장형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저지연 응답, 안정적 연결, 기기 간 연동 역량 등이 서비스 품질의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에 MWC 상하이 2026에서는 상향링크·지연 등 망 성능을 고도화하는 접근과 통신망이 연결·관리하는 대상을 AI 단말과 지능형 기기로 넓히는 접근이 함께 제시

① (망 성능 고도화) 현장형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용력 강화

● (화웨이) 상향링크 병목 해소로 AI 단말 데이터 수용력 강화

- 화웨이는 다운로드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통신망으로는 AI 단말이 기지국으로 올려보내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향링크를 모바일 AI 서비스의 우선 병목으로 지목
- 이에 기지국이 다중 안테나로 상향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고, 인접 기지국까지 공동 수신에 활용해 단말이 올려보내는 데이터의 수용 한계를 높이는 GigaUplink를 공개
- 이는 망 경쟁의 기준이 하향링크 다운로드 속도 중심에서, 현장 단말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는 상향링크 역량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

● (ZTE) 망·서비스·연산 통합 제어 체계 구축

- ZTE는 AI 서비스 수요가 망 제어, 품질 관리, 연산 배정을 동시에 요구한다고 판단, 분리돼 있던 자원을 통합 제어하는 운영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



- 이에 따라 ZTE는 AI 수요와 망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용 데이터센터에 연산을 배정하고 망 경로와 자원 설정을 동시 조정하는 NewStart AIOS를 ‘AI 시대의 기술 기반’으로 제시
- 결국 망 경쟁의 무게중심은 개별 장비 성능보다 망, 서비스, 연산 자원 등 분산된 자원을 통합 제어해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운영 체계 역량으로 이동할 전망

② (망 기능 확장) 연결 품질 관리에서 기기 간 협업 지원으로 확대

● (차이나텔레콤) 트래픽·위치·서버 분석으로 AI 서비스 품질 개선

- 차이나텔레콤은 신규 장비 증설보다 기존 망의 혼잡·위치·품질 상태를 AI로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자체 최적화에 주력
- 이를 위해 시간대별 트래픽을 분석해 혼잡 구간의 주파수를 재배분하고, 기지국 신호 기반 위치 파악을 통해 단말과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연결하는 방식을 제시
- 이는 통신망의 역할이 데이터 전달을 넘어, 트래픽·위치·품질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조건에 맞게 연결 경로와 처리 위치를 조정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

● (차이나모바일) AI 에이전트 기기 간 협업을 위한 통신 기술 제시

- 차이나모바일은 연결 대상을 사람·스마트폰에서 로봇·AR 기기 등 AI 에이전트 탑재 기기로 넓히며, 기기 간 협업을 지원하는 통신 구조를 제시
- 자율 판단과 협업을 수행하는 AI 기기가 새로운 연결 주체로 부상하면서, 기기 간 명령 전달, 상황 공유, 작업 분담을 지원하는 통신 구조 필요성 제기
- 이를 위해 제조사와 기능이 다른 기기 간에도 개별 설정 없이 연산 작업을 분담하도록 지원하는 통신 기술 ACN과 이를 외부에 개방한 플랫폼 ACOP를 시제품으로 공개
- 실제 행사장에서는 사용자가 AR 안경으로 지시를 내리면 로봇개가 이를 수신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물체를 탐색·운반하는, 사람-안경-로봇 간 통신망 기반 협업을 시연
- 이는 통신망의 역할이 개별 단말 접속 지원을 넘어, 이기종 AI 기기의 명령 수신, 상황 공유, 작업 수행을 연결하는 협업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3. (지능형 인프라) 연산·전송·전력 병목 해소 경쟁 본격화

- 칩 성능 중심에서 데이터센터·광연결·엣지 운영 효율로 확장
 - AI 네이티브 네트워크가 통신망의 품질 보장 문제를 다뤘다면, 지능형 인프라는 그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연산, 전송, 전력의 물리적 병목을 해소하는 문제에 해당
 - 추론 기반 AI 사용이 확대되면서 AI 인프라 경쟁의 초점은 더 큰 모델과 더 많은 GPU 확보에서, 연산·전송·전력 각 구간의 병목을 낮추는 운영 효율로 이동하는 양상
 - 다만 최고 사양 AI 칩은 자금력이 앞선 글로벌 클라우드 대기업에 우선 배정되는 구조여서, 통신사와 후발 사업자가 칩 성능만으로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운 여건
 - 이에 중국은 개별 칩 성능 경쟁보다 데이터센터 내부 연산 효율, 센터 간 광전송 성능, 통신 거점 기반 분산 연산, 산업 장비 단위 현장 처리를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

① (연산 생산·전송) 데이터센터와 광연결의 효율 고도화

- (ZTE) 토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데이터센터 병목 제거
 - ZTE는 데이터센터를 토큰 생산 공장에 비유하며, 경쟁의 핵심이 연산 규모 확대보다 토큰 1개당 생산원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있다고 규정
 - 이때 원가 상승 요인으로 개별 GPU 성능 부족보다, 칩 연결이 확대될수록 심화되는 칩 간 통신 지연과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발열 부담을 지목
 - 이에 GPU 간 데이터 이동 경로를 줄인 SuperPod를 통해 통신 지연을 낮추고, 칩 직접 냉각과 고전압 전력 공급을 결합해 전력·발열 부담을 완화
 - 이는 AI 인프라 경쟁의 관건이 GPU 확보나 연산량 확대를 넘어, 동일한 토큰을 더 낮은 원가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센터 설계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 (YOFC) 데이터센터 간 전송 병목 완화를 위한 광연결 고도화
 - YOFC는 분산된 데이터센터 간 전송 병목을 줄이기 위해 광연결을 AI 실행의 핵심 인프라로 제시하고, 연산 결과를 신속히 주고받는 연결 성능을 주요 경쟁 요소로 부각
 - 대규모 AI 연산은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산 처리되는 만큼, 센터 간 전송 손실과 지연은 서비스 응답 속도와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
 - 이에 YOFC는 빛을 유리가 아닌 빈 공기 통로로 전달해, 유리 매질 통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속도 저하와 신호 약화를 줄인 공심 광섬유를 상용화 단계 기술로 제시

- 이는 AI 인프라 경쟁의 범위가 데이터센터 내부 연산 효율을 넘어, 분산된 센터를 하나의 연산 자원처럼 연결하는 센터 간 전송 품질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② (현장 분산·엣지 실행) 통신 거점과 산업 장비의 연산 자원화

● (차이나타워) 기존 통신 자산의 엣지 연산 거점화

- 실시간 현장형 AI 확대로 중앙 데이터센터와 데이터 발생 지점 간 왕복 전송이 서비스 지연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현장 인근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연산 거점의 필요성이 확대
- 차이나타워는 신규 데이터센터를 대규모로 증설하기보다, 전국에 구축된 기존 기지국 관련 시설과 타워 사이트를 엣지 연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
- 해당 자산은 위치, 전력, 공간, 망 접점을 이미 갖추고 있어, 별도 부지 조성 부담 없이 데이터 발생 지점 인근의 분산 연산 기반으로 활용 가능
- 이는 AI 인프라 확충이 대형 데이터센터 신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통신 부지와 전력·망 접점을 엣지 연산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도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인텔) 산업 장비 단위의 실시간 AI 처리 지원

- 인텔은 연산 기능을 통신 거점보다 더 가까운 산업 장비 내부에 배치해, 제조·교통·로봇 제어 현장의 실시간 AI 처리 수요에 대응하는 접근을 제시
- 제조, 교통, 로봇 제어와 같은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한 뒤 응답을 기다릴 경우 대응에 지연이 발생하고 민감 정보의 외부 전송 부담이 동시에 발생
- 이에 인텔은 디지털차이나와 함께 CPU, GPU, NPU를 결합한 차세대 산업용 프로세서를 공개하고, 지연시간과 보안이 모두 중요한 산업 현장의 AI 수요에 대응
- 이는 AI 인프라의 확장 방향이 대형 데이터센터와 통신 거점 구축을 넘어, 산업 장비 자체의 실시간 처리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4. (AI 단말·피지컬 AI) 사용자 의도와 현장을 잇는 AI 점점 재편

● 기기 성능 경쟁에서 의도 해석·작업 조율 역량으로 확장

- AI 단말·피지컬 AI는 사용자와 물리 환경이 AI와 만나는 최종 접점으로, 스마트폰, PC, AI 안경은 사용자 의도 해석과 AI 호출을 담당하고 로봇은 이동·조작·협업을 수행하는 물리적 실행 접점으로 부상
-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폰, PC, 폴더블, AI 안경, 로봇은 단순히 앱을 구동하는 기기가 아니라, 사용자 의도를 해석하고 클라우드·엣지 연산 자원과 다중 기기를 조율하는 역할로 재정의
- 단말 경쟁의 중심이 칩·카메라 등 하드웨어 사양에서 운영체제·에이전트 기반의 작업 조율 역량으로 옮겨가는 한편, 로봇은 AI가 화면 밖 물리 세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새 형태로 부각

① (AI 단말 인터페이스 재편) 기업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단말 역할 재정의

● (레노버) 개인·기업·보안 환경을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통합

- 레노버는 개인용 AI 단말과 기업용 AI 인프라를 하나의 체계에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공개하며, 단말 제조사가 기기 공급을 넘어 AI 운영 환경 설계자로 역할을 넓혀가는 방향을 제시
- 이를 위해 자체 AI 기반 개인 지능형 제품과 이기종 연산 플랫폼, 초노드 솔루션, 에이전트 솔루션 등을 전시하며 개인 단말에서 기업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공개
- 여기에 AI 에이전트에 하드웨어 수준의 신뢰 신원을 부여하는 AI 신뢰 일체형 기기를 함께 선보이며, 에이전트가 업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인증 체계도 함께 제시
- 이는 단말 제조사가 개별 기기를 판매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개인·기업·보안 환경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설계·운영하는 AI 환경 사업자로 역할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

● (아너) 운영체제를 에이전트 작동 기반으로 재설계

- 아너는 단말 운영체제 자체를 에이전트 작동 기반으로 재구성해, 단말이 사용자 의도를 해석하고, 서비스를 조율하는 방향에 초점
- 아너는 차세대 운영체제 Agentic OS를 의도 중심 작동,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능동 지능, 다중 기기 협업의 네 축으로 설계하고 단말이 서비스를 능동 연결하는 구조를 강조



- 이를 위해 음성·손동작·시선 등 감각 입력으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고, 단말용과 클라우드용 자체 대형 모델을 조합해 작업 계획을 수립한 뒤 앱과 기기를 넘나들며 자동 수행
- 이는 단말의 차별화 요인이 하드웨어 사양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사용자 의도를 얼마나 정확히 해석하고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
- (비보) 폴더블 대화면을 AI 업무 공간으로 구현
 - 비보는 폴더블 대화면에 온디바이스 AI 처리 역량을 결합해, 회의 전사·파일 요약 등 일부 업무를 단말 안에서 처리하는 생산성 환경 구현에 초점
 - 기존 폴더블이 대화면 기반 멀티태스킹 편의에 주력했다면, 비보는 온디바이스 AI와 대화면 작업 공간을 결합해 업무 흐름이 단말 안에서 이어지는 환경을 제시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X Fold6에 대화면 AI 작업에 최적화한 전용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초저비트 양자화를 통해 모델 용량과 메모리 점유율을 낮춰 단말 내 개인화 AI 처리 기반을 구현
 - 여기에 앱과 AI 도구를 업무 단위로 묶어 작업 흐름을 구성하는 Atomic Workbench를 탑재, 최대 4개 앱의 직렬·병렬 동시 운용과 일괄 번역·작성 등 AI 단축 조작을 지원
 - 이는 폴더블 경쟁 기준이 화면 크기와 접힘 방식에서, 대화면·온디바이스 AI·작업 흐름 조율을 결합한 업무 생산성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 ② (피지컬 AI 확장) AI가 화면 밖 물리 세계의 작업 수행으로 확대
 - (AgiBot) 모델·데이터·로봇·배치를 결합한 피지컬 AI 양산 체계 구축
 - AI 단말이 화면과 음성을 통해 사용자와 AI를 연결하는 기기였다면, 피지컬 AI는 로봇이라는 물리적 신체를 통해 AI가 현실 환경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사람과 협업하는 영역에 해당
 - AgiBot은 보행, 물건 잡기, 상호작용을 하나의 로봇 본체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가상훈련과 실제 현장 데이터를 반복 순환시켜 로봇 동작의 정확도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제시
 - 이를 바탕으로 매장接客용, 공장 협업용, 정밀 조작용, 야외 자율 이동용 등 용도별 로봇 플랫폼과 8개 기반 모델을 공개하고, 산업별 배치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도 제시
 - 이는 피지컬 AI 경쟁이 개별 로봇 성능 시연을 넘어, 모델·데이터·하드웨어·현장 배치를 결합한 사업화 체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5. (6G·NTN) 이동형분산형 AI를 위한 차세대 연결 구조 부상

- 5G-A 기반 고도화에서 6G·위성-지상 통합망 검증으로 확대
 - AI 단말과 피지컬 AI가 사용자·물리 환경과 만나는 접점을 넓혔다면, 6G·NTN은 이러한 접점이 요구하는 상시 연결, 초저지연, 광역 커버리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연결 설계에 해당
 - 이번 행사에서 6G 산업 생태계 전시 구역이 처음 마련되면서, 6G 논의가 장기 비전 수준을 넘어 표준화·시제품·주파수 확보를 병행하는 산업화 준비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이 가시화
 - 6G는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연결·연산·센싱·AI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결합하는 설계로 논의되고, NTN은 지상망이 닿지 않는 영역까지 연결을 확장하는 보완 구조로 부각
- ① (6G의 AI 네이티브 진화) 연결·연산·센싱을 통합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설계
 - (퀄컴) 단말·엣지·클라우드를 잇는 6G 기반 AI 서비스 구조 제시
 - 퀄컴은 6G를 단순한 차세대 이동통신 규격이 아니라, AI 서비스가 데이터센터·통신 엣지·단말 전반에서 끊임 없이 실행되도록 뒷받침하는 연결·연산·센싱 통합 구조로 규정
 - 그 배경으로 사용자 환경이 앱 조작 중심에서 음성, 안경, 위치 등을 통한 상시 에이전트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며, 단말·엣지·클라우드 간 실시간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제시
 - 특히 AI 안경처럼 항상 착용하는 단말은 시야와 음성으로 끊임없이 AI 추론을 호출하므로, 상시 연결과 초저지연을 동시에 보장하는 네트워크 설계가 핵심 조건으로 부각
 - 상용화 일정으로는 '28년 시범용 단말과 '29년 상용 출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3GPP Release 21 표준 초안이 '27년 3월 승인 예정인 점을 산업화 근거로 함께 제시
 - 이로써 퀄컴은 6G를 속도·용량 중심의 세대 교체가 아니라, AI 서비스의 분산 연결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설계 문제로 재규정하고 구체적 상용화 시점까지 제시한 점이 차별화
 - (화웨이) 5G-A에서 6G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 경로와 핵심 인프라 방향 구체화
 - 화웨이는 현재 5G-A 기반에서 6G로 이행하기 위한 단계적 전환 경로와 코어망·주파수·위성 연계 등 핵심 인프라 방향을 제시



- 코어망과 관련해서는 기존 통신 제어 기능에 데이터 분석과 AI 판단 기능을 결합해, 서비스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가 스스로 자원을 조정하는 AI 네이티브 코어망 설계 방향을 제안
- 주파수 측면에서는 U6GHz 대역을 차세대 핵심 대역으로 강조하며, 화웨이는 해당 대역의 이동통신 활용 확대와 일부 지역의 초기 상용 배치 가능성을 제시
- 위성-지상 통합망과 관련해서는 지상 통신 운영사가 위성 운영사 망에 로밍 접속하는 방식과, 지상 운영사가 위성망 구축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 구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 이를 통해 화웨이는 6G가 기존 인프라와 단절된 세대 교체가 아니라, 5G-A 위에 코어망 지능화와 주파수 확보, 위성 연계를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단계적 경로임을 구체화

② (위성·지상 통합망 구현) NTN과 저고도 연결의 산업화 준비

● (AsiaInfo) NTN 기반 위성-지상 통합망 구현과 산업 연결 확장

- AsiaInfo는 위성-지상 통합망과 퍼지컬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솔루션 구현에 초점을 두고, NTN 기반 산업 연결 확장 가능성을 제시
- AsiaInfo는 기존 휴대폰으로도 위성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기지국을 위성에 직접 탑재하는 방식을 공개하며, 단일 위성으로 1,600개 이상 단말의 동시 접속을 구현한 점을 부각
- 여기에 5G AI-RAN 전용망과 위성 코어망, 보안·과금 시스템을 결합한 위성-지상 통합망을 전시하며, 자율주행·해운·항공 등 지상망 사각지대의 산업 연결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구체화
- 아울러 현장 환경을 감지하고, 로봇이 작업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학습 데이터로 다시 반영하는 순환형 퍼지컬 AI 운영체계를 공개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접근을 강조
- 이를 통해 위성-지상 통합망이 단순한 통신 도달 범위 확대에 그치지 않고, 퍼지컬 AI와 저고도 서비스, 산업 자동화와 결합되는 산업 연결 인프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

출처 : MWC Shanghai, 외(2026.6.)

<https://www.mwcshanghai.com/articles/wraps-up-attendees-around-the-world>
<https://www.mwcshanghai.com/glomo-awards-asia>
<https://www.rcrwireless.com/20260624/5g/mobike-china-gsma>
<https://www.themiilk.com/articles/a78f0f9f0?u=9a5578ca&t=ab657f69f&from=>
<https://news.qq.com/rain/a/20260626A08WHT00>
<https://finance.eastmoney.com/a/202606253783465370.html>
https://www.stdaily.com/web/gdxw/2026-06/25/content_537291.htm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3469541
<https://finance.sina.com.cn/tech/roll/2026-06-27/doc-iniewhaq1266689.shtml>
<https://m.bjnews.com.cn/detail/1782476921129872.html>
<https://finance.eastmoney.com/a/202606263785027854.html>
<https://www.stcn.com/article/detail/3980871.html>
<https://finance.eastmoney.com/a/202606263783487477.html>
https://www.stdaily.com/web/gdxw/2026-06/25/content_537337.html
https://www.10086.cn/aboutus/news/groupnews/index_detail_55308.html
<https://www.chinatelecom.com.cn/ct/news/jtxw/167395.html>
<https://finance.sina.com.cn/jjxw/2026-06-26/doc-inietnfr7317686.shtml>
<https://www.news.cn/info/20260624/5f333ba346da4b4cbcd132a0f1a04817/c.html>
<https://www.huawei.com/en/news/2026/6/mwcs-ai-byte-token>
<https://www.huawei.com/en/news/2026/6/mwcs-mobileai-gigauplink-solution>
<https://www.agibot.com/article/231/detail/63.html>
<https://www.mobileworldlive.com/qualcomm/qualcomm-looks-to-6g-support-for-ai-fr>
[om-2029/
https://www.asiainfo.com/zh_cn/content_5156.html](https://www.asiainfo.com/zh_cn/content_5156.html)